

2022년 10월 23일 “예수님의 비유(17) 포도원 일꾼들”(마 20:1-16)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질을 갖추고 삶과 사역을 감당할 때, 기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사 55:8-9 참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1] 부름 받은 일꾼들

다른 시간 대에 부름 받은 일꾼들은 주인과 정당한 품삯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받은 품삯은 모두 1 데나리온으로 동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만이 터졌습니다(11-12 절). 그랬더니 주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웁니다(13 절). 덧붙이기를 내 선한 뜻으로 후한 것이 거슬리냐고 되묻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19:30 참고).

[2] 첫째와 꼴찌(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문맥 관찰: 비유에 앞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19:16-22).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먼저 된 자처럼 보였는데, 결국 나중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19:27). 주님은 격려를 하시면서도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만약 중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요 21:21-22 참고).

[3] 일꾼과 주인의 갈등 상황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경제 운영방식이나 공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합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먼저 온 일꾼들은 남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공허함, 시기, 부러움,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위한 갈등의 해소는 주인(하나님)의 주권적 방식과 공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나는 어떤 부르심의 자리이든 은혜의 거룩한 소명의 자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나중 온 자가 같은 품삯을 받을 때 당황스러울 지라도 이내 주인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멋지고 옳게 볼 것이며, 남과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나 선하게 대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대우가 동료들보다 낮다면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부름 받은 자리가 거룩하며 최고 가치의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그러합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에 있을까? 고민할수록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에 정확한 한 가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것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나 아니면 못할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룩한 부르심의 일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께서 선하심과 사랑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자리를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시작했어도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첫째의 길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가장 일찍 부르심을 받은 포도원 일꾼이라면 동료들이 나와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2.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르신 분에 대한 나의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요?